

## 한·일 지역간 협력에 관한 연구<sup>1)</sup>

### < 포인트 >

-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지역간 협력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 한·일 지역간 협력의 실적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음
- 먼저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협약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론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한·일 우호·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건수 추이를 10년 단위로 살펴본 결과, 2010년대에 들어 협약체결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매도시 협약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우호·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반면 일본 쪽은 홋카이도가 한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체결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협력의 농도가 깊어지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임
- 1990년대 초에서 2000년경까지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그 대상은 무역과 투자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초기단계에는 실행을 담보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자본, 기술, 인재 등 협력분야의 구체적 제시가 이루어지는 협력의 형태로 변해간 것임
- 이러한 지역간 협력의 변천과정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본 보고서는 오태현 · 후카호리 스즈카(2018) ‘한·일 지역간협력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제79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1. 서론

-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지역간 협력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규명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 역사문제 등으로 인한 한·일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간 협력이 그 돌파구가 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중앙일보, 2018.01.30)
  - 즉 국가간 경제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임
-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일외교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투 트랙(역사 갈등과 경제·안보 협력 분리)’ 기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열쇠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간 교류에서 벗어난 지역간 협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일 지역간 협력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한·일 양국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일 지역간 협력에 대해 이루어진 학술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한국은 도지사협의회, 일본은 국토교통성 광역지방정책국에서 양국 지역간 협약 체결 건수를 정리하여 공개하고는 있지만, 협력의 발전과정은 물론 특징 등을 분석한 연구결과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족한 상태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 이은 2장에서 경제협력의 유형별 특징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는 한편 분석틀을 제시함
  - 3장에서는 한·일 지역간 자매·우호 협약 체결을 중심으로 지역간 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함
  - 이어서 4장에서는 지역간 경제협력의 대표 사례로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및 한·큐슈 경제교류회의를 선정하여 지역간 협력의 변천과정과 주요 특징을 규명함
  - 마지막으로 5장의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분석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함

## 2. 지역간 협력의 이론적 배경 및 의의

-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지역간 협력이 갖는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함
- 두 나라간 경제협력은 국가 주도의 FTA 등의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외에도 지역간 협력, 산업간 협력, 기업간 협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표1>참조)>

<표 1> 경제협력 유형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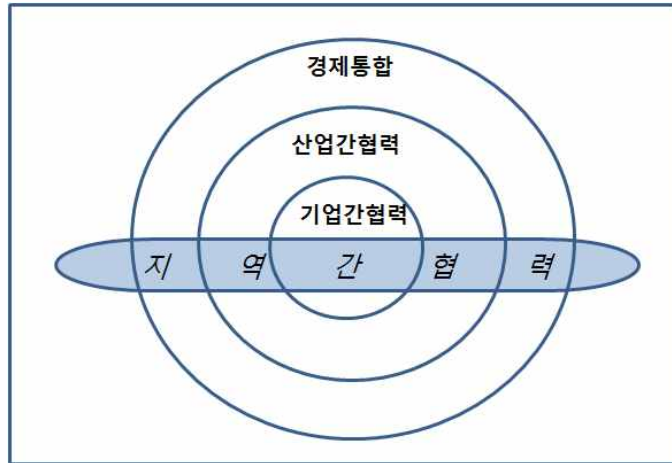
협력 유형	주체	협력방법	목적
지역간 협력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우호협력 인재교류 기술제휴	▷ 국제상호이해 증진 ▷ 지역자원 활용 및 보완 ▷ 수익창출 및 지역진흥 ▷ 기술력 향상
기업간 협력	기업	자본투자 연합구성	▷ 자본조달 및 수익창출 ▷ 공통과제에 대응
산업간 협력	해당산업 유관협회 등 단체	정보교환	▷ 시장개척

자료: 필자 작성

- 지역간 협력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자매도시 혹은 우호도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관련 사업을 추진함
- 협력관계를 맺는 목적으로는 국제 상호이해 증진, 지역자원 활용 및 보완, 수익창출 및 지역진흥을 들 수 있음
  - 협력의 주체가 기업이 되는 기업간 협력은 자본제휴, 기술제휴, 연합구성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주된 협력의 목적으로는 기술력 향상, 자본조달 및 수익창출은 물론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사례도 있음
- 한편 산업간협력은 해당산업의 유관기관 특히 협회 등의 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환을 협력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협회 가입사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함
- 이렇듯 두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협력은 협력의 실행주체가 되는 기업은 물론 해당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간 협력이 있을 수 있고, 범위와 기간 등 다양한 수준으로 체결되는 경제통합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이 있음

- 이런 경제협력의 유형 모두를 관통하듯 협력이 가능한 범위가 넓고 대부분의 경제주체에 영향을 주는 협력유형이 지역간 협력이라고 볼 수 있음(<그림1>참조)

<그림 1> 지역간 협력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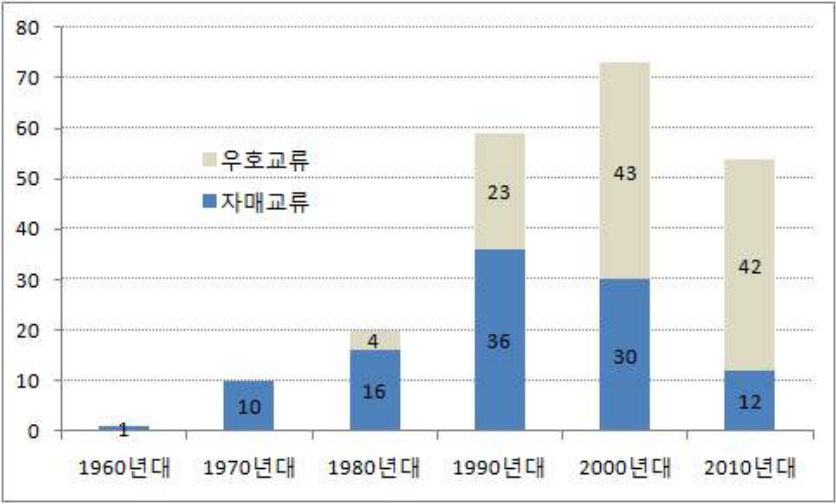
자료: 필자 작성

### 3. 한일 지역간 협력의 변천과정 및 특징

#### 1) 한·일 지역간 협력 실적

- 한·일 지역간 협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는 자매·우호 도시의 체결 건수가 유용함
  - 대한민국의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하는 한·일 교류협력(자매·우호) 체결 건수 결과에 따르면 2018년 3월 15일 현재 총217건의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10년 단위로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대는 울산시와 야마구치(山口)현 하기(萩)시 간에 이루어진 체결이 유일했음
- 1970년대에는 자매교류 체결만 10건의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 들어와 처음으로 우호교류 체결이 4건 이루어졌음
  -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 한·일 지역간 협력 체결 건수는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자매교류보다는 우호교류의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그림2>참조)
  - 2010년대에 들어와 우호교류 체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매교류 체결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그림 2> 한·일 교류(자매·우호) 체결 건수 추이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검색(2018년 3월 5일)결과 도출한 217건을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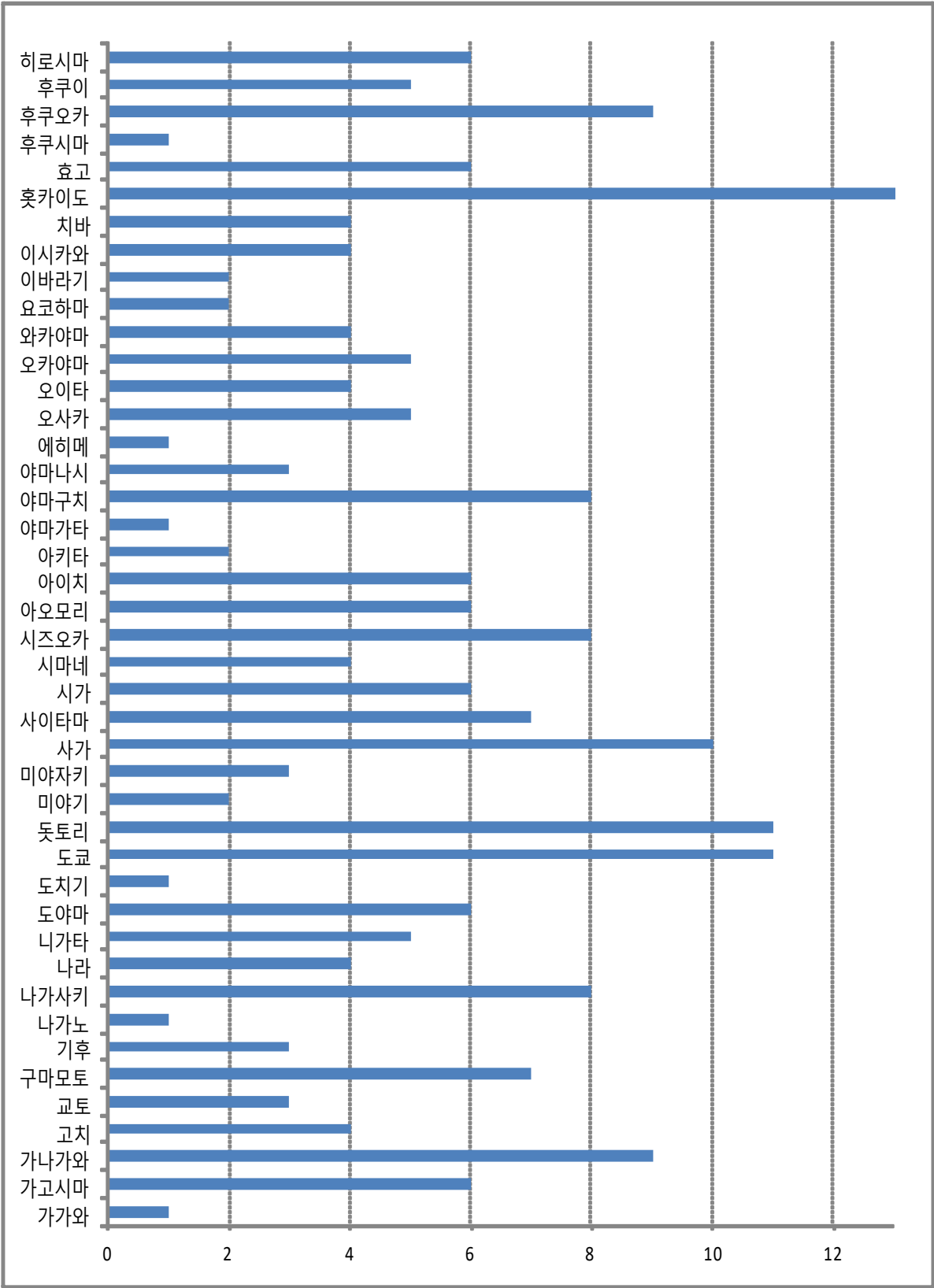
- 한편 한국의 지역별로 교류 체결 건수를 살펴보면 강원도와 경기도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경남과 충남, 전남 순으로 건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그림3>참조)
- 한국의 동남쪽을 중심으로 일본 지역과의 체결 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체결 건수가 증가하는 등 일본 지역과의 교류협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 한·일 교류 체결 건수(한국 지역별)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검색(2018년 3월 5일)결과 도출한 217건을 바탕으로 작성

<그림 4> 한·일 교류 체결 건수(일본 지역별)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검색(2018년 3월 5일)결과 도출한 217건을 바탕으로 작성

- 일본의 체결 대상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홋카이도임(<그림4>참조)
  - 총 14건으로 2위인 돗토리와 도쿄의 12건보다 2건이 많다. 다음으로는 사가, 가나가와, 후쿠오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후쿠시마, 에히메, 야마가타, 도치기, 나가노, 가가와는 단 한 건의 체결에 그치고 있음
- 이를 지방 구분으로 분류하면 홋카이도 13건, 도호쿠(東北) 12건, 간토(關東) 36건, 주부(中部) 41건, 긴키(近畿) 28건, 시코쿠(四國) 6건, 주고쿠(中國) 34건, 큐슈 47건으로 큐슈 지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많은 주부 지방에 포함된 호쿠리쿠 지역은 15건으로 3현만으로 구성된 지역인데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임
  - 전체적으로 보면 남해의 반대편인 큐슈, 동해안인 주고쿠 및 호쿠리쿠 지역 등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지역에서 보다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지역간 협력의 구체적 목적 및 협력형태를 살펴보기로 함

## 2) 한·일 지역간 협력이 주요 특징

-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한·일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진행된 사업을 협력의 주체별로 살펴보면 목적과 활동범위, 활동주체와 협력형태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첫째 협력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한·일 지역간 협력을 위해 체결된 자매·우호도시의 첫 번째 사례는 1968년에 체결된 울산광역시와 야마구치(山口)현 하시(萩)시 간의 협약이었으며, 이 협약의 목적은 국제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상호 지역자원의 활용 및 보완과 양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해결 등 수익창출과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둘째 협력의 주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 지역간 협력의 주체로는 시도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지역지부 등 지역의 행정기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그 외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으로 대학 등 연구기관과 문화교류시설(사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과 공익법인 등도 지역간 협력의 주체가 됨

□ 민간주체로는 경제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들 수 있음

- 협력의 방식으로는 한국측의 광역시와 일본의 시, 한국의 도(道)와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위치한 양국의 단체가 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양국 및 양 지역의 다수의 관계 주체가 연계하여 협력관계를 체결하는 경우로 나뉘볼 수 있음
- 특히 후자의 경우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그 사무국을 행정기관 안에 설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셋째 활동분야 및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활동분야에 대해서는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등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면서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그 외 상호 지역과제의 해결 및 지역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산업·경제 분야 및 관광, 교통·물류, 환경·자연보호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이루어짐

□ 전자의 경우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우호 도시 협약을 체결할 때 들어간 내용 안에 민간교류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

- 활동 내용으로는 홈스테이와 교직원 교류, 지역 축제 및 스포츠 이벤트 개최와 관련한 인재파견 등이 포함됨

□ 후자의 산업·경제 분야와 관광 등과 관련한 활동내용으로는 전시회 및 국제 심포지엄의 개최, 관광 프로모션 등의 개최와 참가를 들 수 있음

- 또한 공통의 연구과제·정책과제 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이밖에도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두 지역에서의 정보발신, 활동 거점 설치등도 이루어지고 있음

&lt;표 2&gt; 주체별로 본 한·일 지역간 협력

협력주체	교류형태	활동주체	활동개요
지방자치단체	자매도시·우호도시 연계 등	야마구치(山口)현 하기(萩)시·울산광역시	한·일 지역간 자매도시 우호도시 결연 1호는 야마구치현 하기와 울산시임. 1962년 당시 하기시 시장이 방한했을 때 두 지역의 물리적 접근성에 착안해서 자매도시 제휴를 통한 양 지역의 발전과 친선을 목적으로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1968년에 자매도시 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2008년에 자매도시 교류제휴 40주년 기념행사 개최함.
		고베(神戸)시(의료기기 공동개발)	대구광역시와의 친선협력도시 제휴에 따라 의료기기(특히 내시경진단 관련)의 공동개발을 추진함. 2009년 대구시의료협 의회와 고베시첨단의료진흥재단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체결에 의한 연구개발을 실시 중임.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연계	돗토리(鳥取)현(항로 활용 촉진)	여객 및 물류 두 가지 면에서 DBS크루즈페리 항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2010년 강원도·돗토리현·연해지방해운항로활성화추진협의회를 설립함. 세 지역에서 차례로 회의 개최함.
		동아시아 지방정부 연합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과제에 대한 상호이해·정보공유의 장을 설치하고 과제해결을 위한 행정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2009년에 설립됨.
	복수의 지역 및 국가간 행정교류	동북아시아 지역국제교류·협력지방정부서밋	동북아 지역의 공동발전을 목표로 참가 지역의 지사가 참석하는 서밋을 1994년부터 개최. 한국에서는 강원도, 일본에서는 돗토리현이 참가하고 있음.
		환동해거점 도시회의	환동해의 거점도시 간 교류와 일체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지방의 시각에서 논의하고 장래 경제교류를 위한 신뢰를 키우는 장으로서 1994년부터 각 도시의 수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한국에서는 동해시, 속초시, 포항시, 일본에서는 요나고시, 사카이미나토시, 돗토리시가 참가하고 있음.
학술·연구기관	학술연구교류	축산초지(畜産草地)연구소(즈쿠바시)	일본의 (독)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축산초지연구소는 한국의 건국대학교와 MOU를 체결함. 학생 연수, 심포지엄 등을 실시하고 있음.
		큐슈(九州)대학한국연구센터	큐슈대학의 한국연구 핵심시설로서 2005년 활동을 시작함. 교내 연구지원, 각국의 한국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심포지엄, 부산대학교와의 연계강좌, 고려대학교 및 동서대학교의 일본연구센터와의 학술교류협정서 체결에 따른 연구·인재교류 등을 실시함.(기타 유사사례 다수)
	교육연구교류	가가와(香川)대학교육학부	대학헌정에 따라 외국과의 학술·문화교류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의 거점이 되기 위해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함. 교육학부는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조형대학원, 청주대학교 인문대학과 학부간 협정을 체결함. 대학교로서는 대구대

			학교와 대학교간 교류협정을 체결해 연구자·학생교류를 전개함(기타 유사사례 다수)
	직원교류	나라(奈良)현 교육위원회	한국 국립문화재단연구소의 연구원과 나라현립 가시하라고고학연구소 연구원의 교환 파견 연수를 실시함.
공익법인 등	특정분야의 교류·연계	(재)환경해 환경협력센터 (도야마시)	‘동북아지역자치연합 NEAR’ 환경분과위원회 코디네이트 사무국인 도야마현과 연계해 해변의 표착물 조사, 황사를 대상으로 한 광역적인 모니터링 조사,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
		일반사단법인 수도권산업 활성화협회	수도권 다마 지역의 산업활성화의 일환으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한양대학교 등과 MOU를 체결함. 또한 한양대학교 내에 TAMA코너를 설치해 동 대학생의 TAMA기업 인턴십, 상담회(한·TAMA 클러스터 기술교류상담회, 한·일기술교류상담회 등), 쌍방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심포지엄 등을 실시함.
NPO법인	특정분야의 비영리교류	NPO법인 후쿠간네트 (후쿠시마현)	한국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한·일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로서 2006년 설립됨. 역사·문화 전문가, 지자체직원, 저널리스트 등이 참가함. 요리·문화강좌, 행사, 인턴십·홈스테이 등을 실시함.
		NPO법인 환경네트워크 구마모토 (구모모토현)	환경 분야에서 조사연구나 학습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의 추진을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됨. 활동의 일환으로 구마모토현 자매도시인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일청소년환경교육 및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를 통한 폐기물처리 산업에 대한 시찰 등을 실시함.
복수주체 협력	양 지역간 경제 협력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협력사업	후쿠오카시는 부산시로부터 국경을 초월한 경제권의 형성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발전의 기축이 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합의를 2009년 체결함. 협력사업의 거점으로서 양 시청 내에 경제협력사무국을 설치함. 관련 단체의 연계 하에서 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 CEO 포럼, 자동차관련부품 전시회 및 환경관계산업 전시회 출전 지원, 무역상담회 등을 실시함.
	한·일경제협력	한·큐슈(九州) 경제교류회의 (※)	지리적·역사적·경제적인 강한 연결을 활용해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고 무역, 투자 및 산업기술의 교류확대·지역간교류의 촉진을 목적으로 1993년부터 매년 상호 개최함. 회의는 자자체, 경제단체, 기업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기반정비, 인재육성, 사업홍보 협력 등 기본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
		한·일해협연 안시도현교류 지사회의	한국 남해안 1시 3도와 일본 큐슈 북부 3현, 야마구치현 간에서 한·일 양 지역의 교류 실태나 향후 전개에 관한 의견교환·교류사업 실시를 통해 양 지역의 발전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1992년부터 각 지자체가 차례로 회의를 개최함. 회의와 동시에 관련 사업(자연환경학습, 한·일연안 표착 쓰레기 청소사업 등)도 실시함.

		한·호쿠리쿠 (北陸) 경제교류회의 (※)	한·일 지방간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화시키기 위해 한·큐슈 경제교류회의를 모델로 한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를 2000년부터 상호 개최함.
	다국간 복수 협력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	환황해 지역에서의 무역·투자, 과학기술, 교육·인재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강화, 열린 환황해경제권의 형성과 산업, 경제의 상호 발전을 목표로 관계 정부기관·지자체·경제단체 등이 모여 상호발전 방안, 상호교류의 원활화·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는 장으로서 출범됨. 큐슈, 한국, 중국 각국에서 차례로 개최함.
		동북아시아 지역지자체 연합	동북아 지역의 발전과 교류·협력의 추진으로 인한 공동발전을 목표로 1996년에 설립됨. 연 1회의 수장급회의 외에 11개의 분과위원회(경제·통상, 교육·문화교류, 환경, 방재, 국경협력, 과학기술 등)를 설치해 각종 연계사업을 실시함. 상설사무국은 경상북도에 위치함.
	다국간 특정분야 협력(관광)	동아시아지방 정부관광포럼	동아시아 지역의 지사·관광행정, 관광업계, 대학교 등의 산관학이 모여 역내교류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으로 세계 각지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도모하기 위해 지사회의, 학술 심포지엄, travel mart(전시상담회) 등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을 참가 지역들이 차례로 매년 개최함.

출처: 國土交通省國土政策局 廣域地方政策課(2012, pp. 8-10)

주: (※) 표시는 <4. 사례분석>에서 다룬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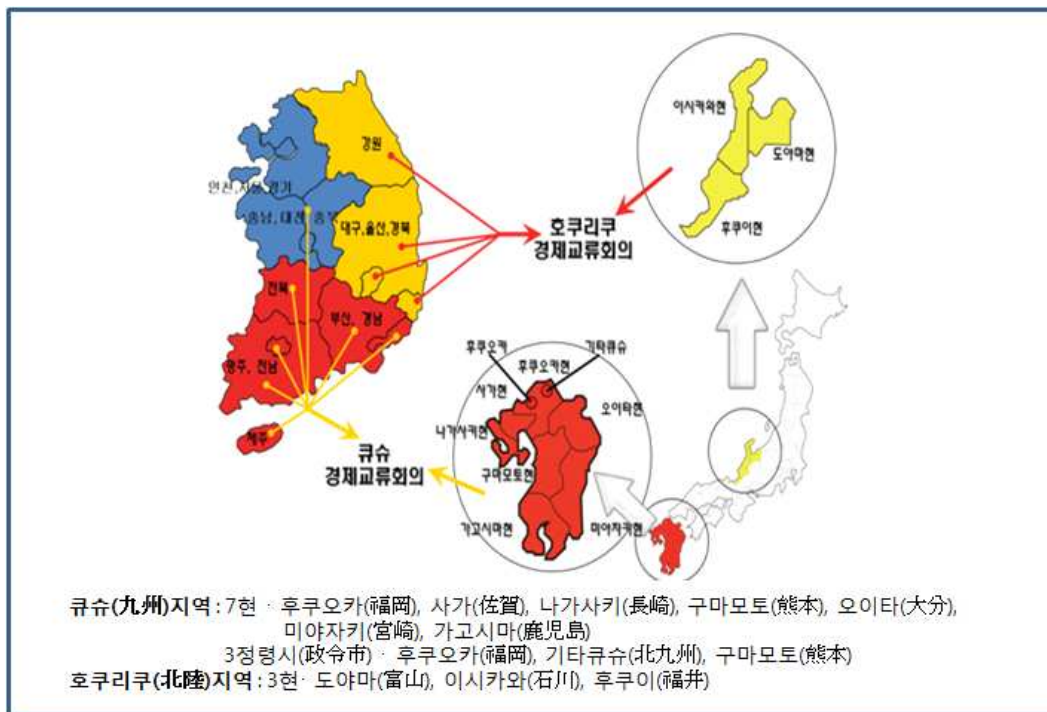
- 이 중에서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및 한·큐슈 경제교류회의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봄
- 이들 회의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대일외교의 기본인 투트랙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경제’ 분야에 관한 회의라는 점, 둘째 각각 24년간 및 18년간이라는 오랫동안 계속 해서 회의를 개최해 왔기 때문에 변천을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지자체(지역)와 민간기업,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사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표2>에서 동일한 교류형태인 ‘한·일 경제협력’에 분류된 한·일해협연안시도교류지사회회는 참가하는 지자체의 대부분이 한·큐슈 경제교류회의에도 중복하여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는 제외했음<sup>2)</sup>

2) 한·일해협연안시도교류지사회의 참가 지자체는 (한국)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일본)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 한·큐슈 경제교류회의 참가 지자체는 (한국)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일본)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으로 일본의 야마구치현을 제외한 지역이 양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 4. 사례분석

- 한·일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인 (사)한일경제협회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지역간 경제교류회의가 있음
  - 일본의 큐슈 및 호쿠리쿠 지역, 한중일 3국간의 무역·투자·기술협력을 촉진하고 환황해경제권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일경제협회에서는 이 사업을 통하여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을 더욱 증진시킴으로써 역내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한·일 하나의 경제권과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5> 한·일 지역 간 경제교류회의 회원도시



자료 : 한일경제협회 내부자료에서 인용

-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간의 지역 경제교류회의에 초점을 맞추어 한·큐슈 경제교류회의 및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서 다룬 회의주제를 통해 지역간 협력의 변천과정을 규명해 보고자 함
  - 이를 위해 과거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두 회의의 주제를 살펴보고 그 변화를 분석함

## 1) 한·큐슈 경제교류회의

- 1992년 일본 큐슈(九州) 지역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 ‘코리아 페스타’(한국우량제품전시상담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큐슈 지역과 1993년에 제1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가 개최되었음
  - 이후 이 회의는 정부 차원의 지역 간 정기교류회의로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
- 이 경제교류회의는 한·일(큐슈) 간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어, 지역 간 경제협력 채널의 구축 및 사업 추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큐슈 지역인 7현 2정령시(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와 한국의 카운터파트너 지역인 4시7도(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동일 업종 간·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자본·기술·인재 등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한·큐슈 경제교류회의는 한국과 큐슈 쌍방의 호혜관계의 유지 및 발달에 기여하는 종합적인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 회의에는 과거 24년간에 한국 측에서 1,174명, 일본 측에서 1,513명, 합계 2,687명이 참가했음

**<표 3> 한·큐슈 경제교류회의 연도별 내용**

	전체회의 의제, 합의사항, 하부 회의 등
제1회 기타큐슈 (1993.11.29)	<p>한국측 관심의제: ①한·큐슈 중견 중소기업 간 산업협력 촉진, ②중견 중소기업 기술자 연수, ③큐슈지역의 퇴역기술자 초청, ④한국상품의 對큐슈지역 수출증대</p> <p>일본측 관심의제: ①큐슈의 4개 수입촉진지역(FAZ) 소개와 한국에 협력 요청, ②무역촉진을 위한 전시회 등 개최에 대하여, ③지역간 레벨에서의 교류의 측면적 지원에 대하여, ④환황해 경제권 형성을 위한 협력에 대하여</p> <p>- 한국세미나</p>
제2회 서울 (1995.2.27)	<p>한국측 관심의제: ①중소기업 기술교류사업의 확대추진 및 내실화, ②산업협력교류단 파견사업 등의 활성화, ③중소기업간 산업협력 희망 수요조사 및 협력알선, ④외국인 전용공단(FIZ) 등 한국투자여건 개선내용의 일본내 홍보 협조, ⑤지방간 경제교류 촉진 지원</p>

	일본측 관심의제: ①업종별 경제교류미션 한국파견 수용, ②중소기업 기술교류전 공동개최, ③FAZ에 대한 한국내 홍보 협조
제3회 나가사키 (1996.2.13)	①한·일간 산업협력 희망 수요조사, ②‘한·일 중소기업기술교류전 IN 큐슈’의 개최, ③경제교류단의 상호 파견, ④기술자 연수 및 지도사업의 발전적 실시, ⑤FIZ와 FAZ의 상호홍보, ⑥한·일 지방간 교류촉진사업의 상호지원 - 한일 지방간 경제교류증진 세미나, 한국의 투자환경설명회
제4회 전주 (1997.6.10)	①한·일 협력의 신전개와 지방간 경제협력, ②환황해 지역의 경제교류 확대 - 한·일 민간교류라운드, 경제교류세미나 및 투자설명회
제5회 오이타 (1998.7.22)	①한·일간 산업기술협력촉진 인프라 확충, ②한·일 기업 및 경제단체간 교류활성화 지원, ③기술자 연수 및 OB기술자 초청지도사업의 발전적 실시, ④투자환경개선, 수입촉진시책 양국내 홍보협력, ⑤한·일 지방간 경제교류촉진사업 발굴·지원 - 한·일 민간교류라운드, 경제교류세미나 및 투자설명회
제6회 광주 (1999.5.30)	①중소기업의 무역·투자·기술 분야 협력기반정비, ②중소기업간의 경제교류단 파견, 각종 전시회 등 사업 적극전개, ③중소기업기술자 對日연수 및 전문기술자 초청, ④한·일 투자환경 상호홍보 협력, ⑤한·일 지역간 경제교류 적극지원 - 한·일 민간교류라운드, 경제교류세미나 및 투자설명회
제7회 미야자키 (2000.9.18)	①환황해권 물류확대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②한국벤처기업의 일본진출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등 협력, ③양 지역간 Local to Local 산업기술협력의 추진, ④지자체 또는 업종별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풀뿌리홍보회 등 투자협력 - 한·일 민간교류라운드, 경제교류세미나 및 투자설명회
제8회 창원 (2001.6.8)	①한·일 지방간 경제교류촉진사업의 발굴·지원, ②양국 중소기업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 ③산업기술협력사절단의 상호 교환 및 기술인재 교류, ④투자환경개선, 수입촉진시책의 양국내 홍보협력 - 제1차 한·일 민간라운드 테이블, 무역촉진세미나, 투자설명회
제9회 가고시마 (2002.8.30)	①중소기업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마련, ②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사절단 상호교환, ③중소기업 기술인재 교류, ④투자환경개선, 수입촉진시책의 양국내 홍보협력, ⑤지방간 경제교류 활성화 - 제2차 한·일 민간라운드 테이블, 무역촉진세미나(반도체, 산업용로봇), 투자설명회, 양국 정부관계자·자치단체간 간담회
제10회 제주도 (2003.7.11)	①중소기업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마련, ②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사절단 상호교환, ③중소기업 기술인재 교류, ④투자환경개선, 수입촉진시책의 양국내 홍보협력, ⑤지방간 경제교류 활성화 - 제3차 한·일 민간라운드 테이블, 무역촉진세미나(자동차산업), 투자설명회, 양국 정부관계자·자치단체간 간담회
제11회 쿠마모토 (2004.7.15)	①중소기업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마련, ②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사절단 상호교환, ③중소기업 기술인재 교류, ④투자환경개선, 수입촉진시책의 양국내 홍보협력, ⑤지방간 경제교류 활성화 - 제4차 한·일 민간라운드 테이블, 무역촉진세미나(IT분야), 투자설명회, 양국 정부관계자 간담회
제12회 제천 (2005.10.12)	①중소기업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마련, ②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사절단 상호교환, ③연수 및 인재육성, 인재교류에 관한 협력, ④무역·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조사 및 홍보협력, ⑤지방간 경제교류 활성화 - 무역촉진세미나(바이오산업), 투자설명회, 양국 정부관계기관간 협의

제13회 사가 (2006.7.13)	①중소기업의 무역, 투자 및 산업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마련, ②중소기업 간 경제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교류단의 파견, 각종 전시회 등 사업의 적극 전개, ③연수 및 인재육성, 인재교류에 관한 협력, ④무역·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조사 및 홍보협력, ⑤지방간 경제교류의 적극적 지원 - 한·일(큐슈) 디지털 콘텐츠/IT비즈니스 포럼 동시개최
제14회 부산 (2007.7.11)	①중소기업의 무역, 투자 및 산업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마련, ②중소기업 간 경제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교류단의 파견, 각종 전시회 등 사업의 적극 전개, ③연수 및 인재육성, 인재교류에 관한 협력, ④무역·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조사 및 홍보협력, ⑤지방간 경제교류의 적극적 지원 - 분과회 : 관광(물산포함), 물류·투자
제15회 키타큐슈 (2008.6.27)	①중소기업간 경제교류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환경·IT·인재 등) 협력의 촉진, ②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적극적 전개, ③지역간 경제교류의 적극적 지원 - 한·일경제교류포럼, IT 분과회/비즈니스 교류·상담회
제16회 광주 (2009.10.8)	①중소기업간 경제교류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환경·IT·인재 등) 협력의 촉진, ②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적극적 전개, ③지역간 경제교류의 적극적 지원 - 금형 분과회/비즈니스 교류
제17회 키타큐슈 (2010.10.13)	①중소기업간 경제교류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환경·IT·인재 등) 협력의 촉진, ②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적극적 전개, ③지역간 경제교류의 적극적 지원 - 에코테크노 동시개최, 한황해 과학기술 포럼, 대학 총·학장 포럼, 비즈니스 포럼, 환경비즈니스 교류회(상담회)
제18회 대전 (2011.11.28)	①중소기업간 경제교류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환경·IT·인재 등) 협력의 촉진, ②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적극적 전개, ③지역간 경제교류의 적극적 지원 - 한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및 WTA 하이테크페어 동시 개최
제19회 가고시마 (2012.11.8)	양국의 자금·기술·인재 등 지역 자원의 상호 보완 및 무역·투자·산업기술의 교류 확대와 지역간 교류 촉진 - 분과회 : 바이오식품, 환경·에너지기계
제20회 부산 (2013.10.1)	미래지향의 한·일(큐슈) 협력 : ①재생에너지·절전산업 협력방안, ②자동차관련 산업 협력방안 - 비즈니스 상담회, 자동차부품 상담회
제21회 나가사키 (2014.11.25)	미래지향의 한·일(큐슈) 협력 : ①산업협력, ②지역간 교류 - 비즈니스 상담회, 관광 인바운드 상담회
제22회 부산 (2015.11.3)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큐슈) 공동번영의 시대로~한·일(큐슈) 글로벌 헬스케어 협력 모델 개발 - 비즈니스 상담회, 선진기기 상담회, 인재채용 상담회
제23회 후쿠오카 (2016.10.12)	한·일(큐슈) 의료산업의 협력과 미래~의공학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한·일 협력 창출 - 비즈니스 상담회, 한·일 제3국 경제제휴 의료요양 라운드테이블
제24회 가고시마 (2017.11.29)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일(큐슈)협력 - 한·일 비즈니스 상담회

- 제20회 회의에서 한·큐슈 경제교류회의의 운영방법이 재검토되어, 세미나 형식의 제안·합의에서 양국간 협의 형식으로 변경되었음
  - 또한 본회의 외에 비즈니스 상담회의 개최를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동시 개최하는 것에 합의되었음
- 제19회 회의에서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이 의료·요양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한국·큐슈 의료·요양보호 교류사업’을 실행하는데 합의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이이즈카연구개발기구(후쿠오카)에 의한 ‘한국·큐슈 의료·요양보호연계포럼’의 공동개최, 한·일 의료·요양보호의 IT화 및 한·일 정보교류에 의한 최적의 지역의료 네트워크와 의료·요양보호 연계 시스템 구축의 모색, 한국인 간변도우미에 대한 일본식 요양보호 기술의 실습과 같은 인재교류 등이 추진되었음
- 3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양국에서 의료·요양보호 분야를 포함하는 고령화 사회와 같은 한·일 공통과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제22회 회의부터는 헬스케어 분야의 한·일간 협력이 회의의 중심 테마가 되었음

## 2)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 1998년 10월 8일에 도쿄에서 한·일 양국은 정상 합의에 의하여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음
  - 이를 통하여 한·일 간 협력단위의 세분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국가차원의 교류와 병행하여 지역 대 지역 차원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1999년 12월에 개최된 제2회 한·일 민관합동투자촉진회의에서 지방간 경제교류 확대방안으로 일본의 호쿠리쿠(北陸) 지역(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과 한국 간에서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음
  - 한국에 카운터파트너가 된 지역은 동해안 2시·2도로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임

- 2000년 7월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에서 제1회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18년간에 한국에서 1,240명, 일본에서 1,736명, 합계 2,976명이 참가하였으며, 양국 지자체·관련 기관의 MOU 체결, 비즈니스 매칭 등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하고 실천해 왔음
- 제1회 회의부터 제10회 회의까지는 전체회의(본회의)를 ‘민관합동회의’로서 제1회 회의에서 합의된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협력, 조사연구의 3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전체회의 외에는 한국·일본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나 실무자간 미팅이 개최되었음
- 제11회 회의부터는 전문분과회가 구성되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이 추진되었음
  - 제11회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의약업에 관련된 현황 파악과 협력 방안의 모색,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의약업 전문 분과회가 개최되었음
  - 이 분과회에는 한국 측에서 대구광역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일본 측에서는 도야마현 약연합회, 호쿠리쿠건강창조클러스터가 참가하였으며, 도야마현 약연합회는 다음 해(2011년)에 한국 방문단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는 것을 표명했음
  - 산업 분야를 정하고 논의할 내용을 좁힘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성과가 기대됨
- 이를 계기로 제12회 회의부터 제17회 회의까지 의료 분야(의료융복합)에 관한 분과회가 계속해서 개최되었음
  - 제12회 회의에서는 한국 대구광역시,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과 일본 도야마현의 의약품·의료기기 제조·판매회사인 (주)코칸도가 한방생약성분을 베이스로 한 신약 개발연구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것에 합의했음
- 제14회 회의에서는 의료융복합 전문분과회에서 발표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호쿠리쿠 라이프사이언스 클러스터가 회의를 계기로 교류를 시작했음
  - 양 기관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한·일 기업이 연계한 의료기기 제조 및 일본에서 한국을 경유한 의료기기의 해외판매에 대한 정보 교환과 연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음<sup>3)</sup>

&lt;표 4&gt;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연도별 내용

	전체회의 주제 및 하부 회의
제1회 도야마 (2000.7.6)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협력 및 조사연구 등 3개 분야에 관한 추진 방안 제시 - 민간교류회의, 한국투자환경설명회, 지자체간 교류회의
제2회 서울 (2001.2.20)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협력 및 조사연구 등 3개 분야 사업 추진 상황의 검토, 새로운 의제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 - 민간경제교류회의, 대일 투자세미나
제3회 이시카와 (2002.4.25)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협력 및 조사연구 등 3개 분야 사업 추진 상황의 검토, 새로운 의제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 - 한국투자환경설명회, 기업 상담회, 실무자 미팅
제4회 대구 (2003.5.28)	파트너십 구축, 기술협력확대, 공동조사연구 등 3개 분야에서 15개 사항에 대하여 합의 - 기업 전시 상담회, 한국투자환경설명회, 비즈니스찬스세미나
제5회 도야마 (2004.5.27)	한·일 5개 자치단체 및 경제단체간 3개 의제 26개 사항에 대한 실행사항 합의 - 한국투자환경설명회, 기업 상담회
제6회 경주 (2005.7.20.)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협력, 조사연구 등 3개 분야에서 세부 실천 사업 도출 - 비즈니스찬스세미나, 기업 상담회, 실무자 협의
제7회 후쿠이 (2006.10.18)	환동해권 지역의 지자체 및 경제단체 등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 협력 및 공동조사 연구 논의 - 개별 실무자 회의, 전시회 출품·상담회
제8회 울산 (2007.11.8)	한·일 양국 지자체간 파트너십 구축 및 산업기술 협력 방안 - 관계 기관간 실무자 회의, 기업 상담회
제9회 이시카와 (2008.5.22)	한·일 양국 지자체간 파트너십 구축 및 산업기술 협력 방안 - 테마별 실무자 회의, 기업 상담회
제10회 강원·원주 (2009.9.11)	한·일 양국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비즈니스 교류 촉진 방안 - 한·일 클러스터 포럼
제11회 도야마 (2010.8.4)	새로운 한·일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 분과회 : 의약업 관련 교류의 촉진
제12회 경주 (2011.9.6)	한·일 양국 지역간, 기업간 교류협력 사례발표 - 분과회 : 의료융복합, 농수특산물 가공식품
제13회 후쿠이 (2012.10.17)	글로벌 시대 한·일 협력 체제의 새로운 구축 - 분과회 : 의료융복합, 물류·인적교류, 환경산업
제14회 대구 (2013.11.21)	미래 지향의 한·일 협력 - 분과회 : 기계산업 분야, 의료융복합 분야

3) 호쿠리쿠 라이프사이언스 클러스터 홈페이지 <http://hiac.or.jp/cluster2/ie170827> (검색일: 2018.2.2)

제15회 이시카와 (2014.9.18)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일 협력 - 분과회 : 소셜 이노베이션을 통한 지방의 활성화, 의료융복합
제16회 울산 (2015.8.29)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 공동번영의 시대로 - 분과회 : 관광산업, 의료융복합
제17회 도야마 (2016.8.31)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 관계 첫 걸음의 구축 - 분과회 : 지자체 교류, 기업 상담회, 의료 클러스터간 미팅
제18회 경북·안동 (2017.8.28)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한·일 지방간 협력 - 분과회 : 지자체, 이노베이션, 기업 상담회

- 한국은 서울만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방의 노력과 지방 기업·교육 기관의 활동도 흥미롭고 유용한 것이 많음
  - 한·일 지자체 간 및 대학교 간 협력은 기업에 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것이 장점임
  - 민간 기업, 특히 한·일 기업과 같이 상호보완·가치창조 관계가 될 가능성이 낮은 관계에서는 쉽게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역간 회의에서 사례를 소개하면서 양국이 서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협력의 니즈를 발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됨
-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2000년에 도야마시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개최되어 왔음
  - 이와 같은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통한 정보의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향후 구체적인 협력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 한·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 개최 의의라고 할 수 있음
  - 계속 교류해 나가면 지역·지자체 단위를 넘어 다양한 한·일 간의 협력으로 이어지길 것으로 기대됨<sup>4)</sup>

### 3) 변천과정 분석

- 한·큐슈 경제교류회의 및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의 주제의 변천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보임

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경제리포트 “제18회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 (2017.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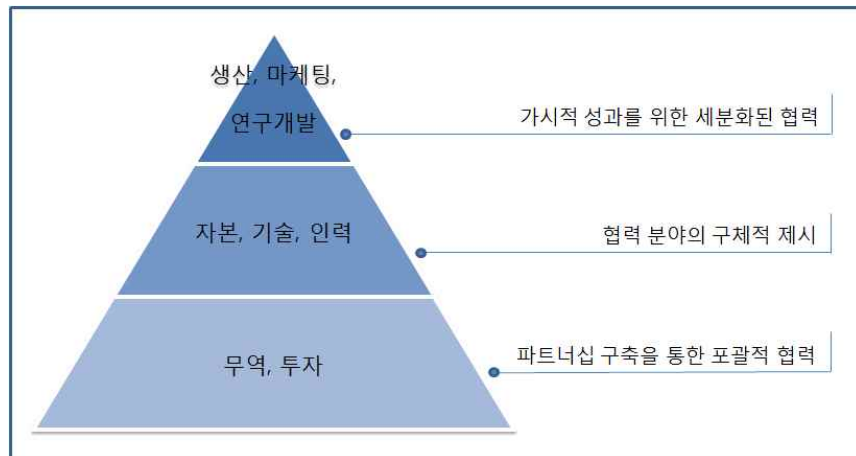
- 첫째, 경제교류회의 초창기에는 한·일 각국의 관심이나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을 알아가는 단계로서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 협력, 한·일 기업 및 경제단체간 교류활성화 지원 등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주제가 중심이었음
  - 그러나 회의가 횡수를 거듭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분과회와 같이 별도로 구체적인 주제를 논의하는 장이 생기는 등 보다 심층적인 논의로 회의가 진행되었음
- 둘째, 오늘날 한·일뿐만 아닌 세계적으로도 ‘경제’의 개념이나 범위 및 다루는 과제가 다양해지면서 주제도 이에 맞게 변하고 있음
- 초기에는 무역, 투자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 요소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 회의에서는 의료산업, 헬스케어, 인재교류와 같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경제 문제나 이노베이션,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를 다루고 있음
- 이러한 두 가지 공통점은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 지역간 협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회의 주제, 즉 회의의 목적이 상호 이해 증진에서 과제해결 추진으로 변하면서 보다 가시적인 회의의 결과물을 창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임
- 셋째, 한·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의 주제는 변해도 지역 활성화라는 회의의 핵심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임
- 지역간 경제교류회의는 양국의 공통과제를 발견하고 정책을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지자체, 지역 사회, 지역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음
  - 따라서 한·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는 양국 지역의 발전원동력과 나아가 지역 내 경제공동체 형성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5. 맺음말

-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지역간 협력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음
- 한·일 지역간 협력의 실적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음

- 먼저 한·일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한 협약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론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한·일 우호·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건수 추이를 10년 단위로 살펴본 결과, 2010년대에 들어 협약체결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자매도시 협약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협력의 밀도가 낮고 안전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매도시 체결 건수가 우호도시 체결 건수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정치 역사적 이슈와 관련한 한·일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우호·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반면 일본 쪽은 홋카이도가 한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체결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일 모두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체결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관광객 유치 등이 협약의 주요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 다음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협력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임(<그림6>참조)
  - 1990년대 초에서 2000년경까지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그 대상은 무역과 투자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초기단계에는 구체적 실행을 담보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자본, 기술, 인재 등 협력분야의 구체적 제시가 이루어지는 협력의 형태로 변해간 것임
  - 이러한 지역간 협력의 변천과정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lt;그림 6&gt; 지역간 협력의 단계별 특징



자료: 필자 작성

-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일 지역간 협력과 관련한 분석을 통해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사례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향후 연구과제로 설정하고자 함
  - 첫째 한·일 지역간 우호·자매도시 협약 체결 건수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 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사례 분석을 축적해 나가는 연구방법론이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둘째 한·일간의 지역협력이 다른 국가, 특히 중국 등과의 지역협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함
  -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참고가 될 만한 연구결과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임. **KJCF**

## &lt;참고문헌&gt;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06), 한·중·일 협력강화를 위한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14), 한국 동해안 4개 지역과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사)한일경제협회, 제1-18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보고서  
 (사)한일경제협회, 제1-24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보고서  
 중앙일보, 2018년 1월 30일자, ‘나라(奈良)에서 발견한 한·일 관계 해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gaok.or.kr/>)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17), ‘제18회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 일본경제리포트  
 北陸ライフサイエンスクラスター, <http://hiac.or.jp/cluster2/ie170827> (검색일: 2018.2.2)  
 国土交通省国土政策局 広域地方政策課(2012), 日韓における越境連携の推進に関する検討調査 報告書  
 (財団法人)北陸産業活性化センター(2002), 北陸地域と韓国とのIT分野における企業間連携促進に係る調査研究